

한국콜마, 지주회사 체제 전환

한국콜마(대표 윤동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6월22일 한국콜마는 투자사업 부문과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사업 부문을 분리한다고 정정공시했다.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사업 부문은 기술적·관리적 지원이 요구되는 Beijing 소재 피투자법인 Kolmar Cosmetics가 발행한 투자유가증권을 포함한다.

한국콜마는 “회사분할의 목적은 향후 투자사업 부문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비율은 한국콜마홀딩스가 0.325, 한국콜마가 0.675로 정해졌다. <우연서 기자>

<화학저널 2012/06/22>